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주희

2015년 2월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정 숙

김 주 희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주희의 가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성격이론	3
2. 사회적 지지	6
3. 주관적 행복감	9
4. 성격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	11
III. 연구방법	13
1. 연구문제	13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3
3. 측정도구	14
4. 자료분석	17
IV. 연구결과	18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
2.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	20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21
4.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28
5. 사회인구학적 요인·성격특성·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30
V. 결론 및 제언	34

참 고 문 헌	39
---------	----

Abstract

부 록	48
-----	----

표 목 차

<표 1> 성격 5요인의 특징	5
<표 2> 아동용 성격특성 척도	15
<표 3> 사회적 지지 척도	15
<표 4> 주관적 행복감 척도	16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
<표 6>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	20
<표 7>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23
<표 8>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25
<표 9>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27
<표 10>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29
<표 11> 사회인구학적요인·성격특성·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30
<표 12> 사회인구학적요인·성격특성·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31

국문초록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 주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정 숙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제주지역 5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총 533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18.0 Program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S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고,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격특성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가족 수, 부모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종교 유무,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종교 유무, 가족 수, 부모 유무,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유무, 부모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가족 수,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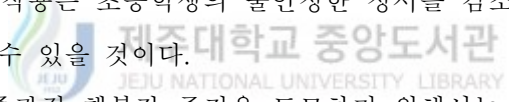
넷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지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서불안정성, 가족지지, 성실성, 외향성, 친구지지, 우호성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요인은 주관적 행복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요인은 주관적 행복감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에서는 정서불안정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불안정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울, 불안, 분노를 자주 느끼게 됨으로써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이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는 지지원으로 부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초등학생의 불안정한 정서를 감소시켜줌과 동시에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정서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견고히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현대사회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고 있으나 풍요로움의 역설과 같이 불행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함께 상승하였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았으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70.04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117.68점)으로 월등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의 낮은 행복감은 사회적으로 우려가 될 만한 수준이며,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가적 차원의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역기능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박현철, 2010)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 행복에 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으나, 이러한 요인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환경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동일하게 제시하여도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행복감 연구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삶의 평가와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행복감 형성(Diener, 1984)의 대표적 이론으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제시하였다. 상향이론은 여러 작은 기쁨과 행복한 순간의 경험들이 모여 행복감을 얻는다고 가정하며, 하향이론은 행복한 성격으로 인해 경험을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혜영·이경화(2008)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회적 요인과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감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가족

기능, 또래 유능성(박현철, 2010; 정채은, 2012; 하선아, 2013)등이 있다. 사회적 요인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강영하(2008)는 인간관계는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체제나 자원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아동의 경우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사회는 가족이며, 성장함에 따라 학교는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사회적 요인은 가족, 교사, 친구로 함축할 수 있으며, 아동은 자신과 가장 밀접한 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기질, 정서지능, 성격강점, 자기통제력(안진, 2009; 김혜경, 2009; 오향숙, 2013; 강소연, 2012)등이 있다. Casta&McCrae(1992)는 이러한 요인을 긍정적 특질이라 하였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틀로서 행복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특히 성격은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같은 기질이라도 성격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적응 및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재영, 2012)에서 성격은 행복감을 탐색하는 유용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인 및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우울 등을 측정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면 긍정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의 제거가 긍정적 정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최진원,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강점을 고려하고 긍정적 정서의 향상을 통한 행복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감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을 결정하는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행복감 및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와 강점을 증진시키는데 도모하며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한다. 더불어 객관적 지표인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초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격이론

1) 성격의 정의

성격(Personality)의 어원적 의미는 탈 혹은 가면의 뜻을 함축한 라틴어 페르조나(persona)를 내포한 말로써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개인의 모습 및 특성을 나타낸다(김옥희, 2008).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성격이론가들이 인간의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격이론을 제시하였으며, 관점에 따라 여러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 따라 성격의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성향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비교적 안정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초하며, 이러한 성향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고 인간을 구별해주는 독특한 특성임을 가정한다. 정신역동적 관점은 정신의 에너지, 상황적 맥락, 정신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성격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학습적 관점은 성격이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학습해 온 것들의 통합된 전체라고 하였다. 인지적 관점은 인지적 과정이 성격의 기초이며, 인지에 따라 정서 및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관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고유한 의미가 있음을 기초로 성격은 개인 내부의 독특함과 선택의 결과라고 하였다(김교현, 심미영, 원두리, 2009).

여러 관점을 바탕으로 성격이란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노안영, 강영신, 2003)를 정리해보면, 성격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일관성 있는 독특한 개인의 행동과 사고의 특징적인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하며, 인간은 개인이 처한 생활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성격요인을 이해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성격 특성을 알아보고자, 성향적 관점에서 특성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을 연속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격특성이론과 성격 5요인의 특징

성향적 관점을 취하는 성격특성이론은 인간 내부는 항상적이고 구조적이며, 일관성 있는 기본 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Allport(1937)는 성격특성이란 환경에 대하여 개인이 독특한 방법으로 적응하려는 심리·신체적 체계의 역동적 조화라고 정의하였고, Eysenck(1982)는 성격특성을 타인과 구별되는 개체의 인식, 정서, 의지 및 신체적 모든 특징의 종합적인 체제라고 보았으며 개인의 독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특성(trait)이라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즉, 특성이론(Allport, 1937)은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 분석하고 인간을 여러 특질에 의해 양적으로 구별하려는 것이다(박귀화, 2001, 조재정, 2012).

이에 Allport와 Odbert(1936)는 사전에서 성격 특징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요약하였고 이 연구를 Catell(1949)이 요인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성격 특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Fiske(1949)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성격의 5요인을 발견하였다(윤효정, 2013).

Goldberg(1981)는 성격 5요인 모델을 'Big Five'로 명명하였으며, 이 다섯 요인은 성실성, 정서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을 의미한다. 성격 5요인 모형이 본격적으로 제시되면서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의 이론으로 형성되었고, 여러 문화권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성격 5요인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국내에서는 안창규, 채준호(1997)의 표준화 작업 결과 한국인의 성격특성 역시 안정적인 성격 5요인 특성 모델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성격 5요인은 성격 특성을 5가지로 분류해 높은 것 이상의 폭 넓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각 요인들은 구체적이고 수많은 하위 특성들로 이루어져있다.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개인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그 특징은 <표 1>과 같다(박선하, 2011; 윤효정, 2013).

<표 1> 성격 5요인의 특징

요인	특징	높은 점수의 의미	낮은 점수의 의미
성실성	목적지향인 행동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목표지향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를 측정.	체계적, 믿음직함, 근면, 시간을 잘 지킴, 정돈됨, 야망이 큼.	목적이 없음, 믿을 수 없음, 게으름, 부주의함, 의지가 약함, 쾌락의 탐닉.
정서 불안정성	심리적 스트레스, 비현실적 생각, 과도한 열망과 충동, 부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얼마나 나타내는지 측정.	걱정, 초조, 감정의 변동, 불안정, 부적절한 감정, 심기증이 있음.	침착, 이완, 안정, 강건함, 자기충족.
우호성	사고·감정·행동에서 동정심부터 적대감까지의 연속선상을 따라 개인의 대인관계 지향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	마음이 여림, 성격이 좋음, 신뢰로움, 도움을 잘 줌, 관대한, 잘 속음, 솔직함.	냉소적임, 무례함, 의심이 많음, 비협조적임, 앙심을 품음, 무모함, 초조함, 조종적임.
외향성	활동수준, 자극에 대한 욕구, 즐거움, 능력 등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정도와 강도를 측정.	사교적, 적극적, 말하기를 좋아함, 사람 중심, 낙관적, 즐거움 추구, 상냥함.	말 수가 적음, 냉정함, 과업 중심, 조용, 활기가 없음.
개방성	자신의 경험을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평가하는지의 여부를 측정, 낯선 것에 대한 인내와 탐색 정도를 측정.	호기심이 많음, 흥미의 영역이 광범위함, 창의적임, 독창적임, 상상력이 풍부함, 관습에 얽매이지 않음.	관습적임, 흥미를 갖는 영역이 제한됨, 예술적이지 않음, 분석적이지 않음.

출처 : 노안영·김신영(2003). 성격심리학. 학지사. p.2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ldberg가 제시한 성격 5요인 모형의 맥락을 토대로 성실성은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감의 정도, 정서불안정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 우호성은 타인과의 좋은 관계 유지에 대한 관심,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의 정도, 개방성은 지적자극, 변화, 다양성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학자들의 관점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이원숙, 1995)는 사회적 환경과 건강 간의 관심을 가진 초기 생태학적인 사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데 널리 이용되었다.

Caplan(1974)은 사회적 지지를 자신에게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총체라고 하였으며, Cohen(1983)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심승원, 2000).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장승옥, 1996)는 여러 가지 공통된 요소들을 포함한다. 사회적 소속감, 인지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제공된 사회적 지지의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소속감이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차원이며,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연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개념의 인지적 평가의 측면을 의미하며, 수행된 지지는 지지의 실제적인 활용을 언급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인간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영위하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원

아동의 사회적 세계는 친밀한 관계의 여러 관계망으로 이루어져있다. 발달과정을 통해 개인은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부모와 형제를 비롯하여 친구, 교사 등의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성영혜, 1993, 윤혜정, 1993)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자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가족, 교사, 친구로 함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지지

아동은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발달해 나간다. 김명숙(1995)은 부모의 적절할 지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직업과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부모와의 높은 신뢰감을 형성한 아동은 높은 수준의 자존감과 자아통제력, 지적발달 및 만족스러운 또래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Woods(1972)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인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제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으로, Furman&Buhrmester(1985)에 의하면 아동은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가족지지는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정성인, 1998).

(2) 교사지지

교사는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다. Werner와 Smith(1982)에 의하면 아동에게 가장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확인된 성인이 교사라고 하였으며 윤혜정(1993)은 학교를 제 2의 가정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삶의 장소이며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교사는 아동에게 지적 성숙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친구지지

친구의 지지는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로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 주소영(2008)은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족 이외의 성인들이나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넓혀 간다고 보았으며 학령기 아동이 친구 지지를 더 의미 있게 인식하는 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아동들은 친구 관계를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며 자기 또래의 나이에 맞는 지능과 흥미를 발달시키고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회적 지지원이 제공하는 지지적 행위의 속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유형이 분류되고 있으며 Cobb(1976)는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지지, 존중되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평가적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사회관계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주는 정보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의하였고, Caplan(1974)는 기능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실제적 지지, 정보제공,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박지원(1985)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여 크게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지지로 존경, 사랑, 애정, 이해, 돌봄, 격려, 신뢰, 관심, 긍정, 공감적 경청 등을 의미하며,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 고양, 의사존중 등의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를 의미한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을 나타내며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으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아동이 인간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영위하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인간관계인 가족, 교사, 친구로 함축하여 사회적 지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원이 제공하는 지지유형으로 박지원(1985)의 연구에 따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3. 주관적 행복감

행복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정의되어 지는 부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기, 만족감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하나의 완전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행복감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사회과학자들이 인구사회적 지표와 행복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삶의 질 또는 행복, 안녕감은 개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이에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심리학에서 행복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킨 학자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Martin Seligman(1998)으로 그는 개인의 행복, 삶의 만족, 희망, 낙관주의 등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인지에 관심을 쏟으며, 인간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맞춘 긍정심리학의 기초를 세웠다. Seligman(1998)은 긍정심리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행복을 가장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았고, 행복한 삶을 3가지의 하위요소인 즐거운 삶(pleasant life), 몰입된 삶(engaged life), 그리고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을 제시하였다.

즐거운 삶이란,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몰입된 삶은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우리의 삶과 행위로부터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삶을 가리킨다(이현수, 2008).

김남희(2006)는 긍정심리학의 목표는 개인의 단점이나 약점보다는 장점이나 강점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이 삶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개발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Seligman의 정의와 관련하여 행복에 관한 연구는 행복주의(Eudaemorphism)와 쾌락주의(Hedonism)의 철학적 전통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복주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과 몰입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며,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심리학적 이론인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Jung의 개성화, Allport의 성숙,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모형,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 등을 기초로 하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제시하였고, 이것을 측정하는 것을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포함한다(이상숙, 2009).

반면, 쾌락주의 전통에 따른 연구로는 Diener(1999)의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을 의미한다. 객관적 조건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적 조건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둘째, 행복은 부정적 요인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삶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안녕은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적 안녕의 정서적 요소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말한다. 즉, 행복감, 즐거움, 환희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우울감, 슬픔, 질투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 할수록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상당히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Andrews와 Withey(1976)는 행복의 인지적 요소인 생활만족의 개념을 포함시켰고, 행복은 단일한 구성 개념이라기보다는 위계적 구조를 지닌 여러 측면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라고 하였다(김혜경, 2009).

따라서 행복에 정서적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대부분의 순간 동안 정서를 경험하며, 정서는 사건에 대한 평가에 의해 유발됨으로 자신의 삶이 바람직한 사건들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다(Diner & Lucas, 2000).

앞서 행복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김연화(2007)는 행복감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며, 긍정적인 감정의 지수와 부정적인 감정의 지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전체적 평가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Diener의 개념을 기반으로 행복감을 정의하고자 한다. 주관적 행복감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들로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며,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정서적 요소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 요소인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통해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행복감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 아닌 주관적 행복감으로 나타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초등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4. 성격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

1) 성격특성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Lyubomorsky(2005)는 인간의 객관적 삶의 특징은 행복에 미약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기질 및 성격과 같은 개인적 자질의 차이가 행복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Casta&McCrae(1992)는 연구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성격특성 중 외향성 및 정서불안정성 간의 강력한 연계성을 발견하였다. 외향성은 사회성, 활기, 사회적 개입과 같은 기질적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 및 행복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었고, 정서불안정성은 충동성, 정신 신체적 정후 등과 같은 기질적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 및 불행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외향성과 정서불안정성은 성격의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에 하위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을 시사해 준다.

성격특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소연(2012)이 아동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의 하위요인 모두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 하였으며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우호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

며 부정적 정서는 드물게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숙(2009)이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이 심리적·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외향성이 심리적·주관적 안녕감에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향적 성격을 지닌 아동이 심리적·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낮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격특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미비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관계만족과 관련된 변인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행복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Watson, 2002)되었다. 즉, 인간에게 있어 관계만족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정서의 향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진(2009)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서 여아와 남아 모두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간의 다소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김현옥(2010)은 사회적 지지원이 제공하는 도움, 만족감 보살피기, 인정, 애정, 결속력 등의 지지가 아동의 행복감을 길러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아버지, 어머니, 교사, 동성친구, 이성친구들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일수록 행복감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아동일수록 행복감이 낮다고 하였다. 박현철(2010)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친구, 가족, 선생님 순으로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반면 김경수(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 중 가족, 친구, 교사 순으로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생에게 가족, 교사, 친구는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들이며, 이들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상호관계는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강점을 증진시킴으로써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며,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 향상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및 행복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다.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항들에 대한 이해도, 신뢰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 4, 5, 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성별과 학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당표집 및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제주도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600부를 배포하여 56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533부를

이 연구의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10문항, 아동용 성격 특성 척도 19문항, 사회적 지지 척도 72문항, 주관적 행복감 척도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졌고, 측정도구의 내용과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 가족 구성원 수, 가족형태, 부모 직업, 부모나이, 종교를 측정하였다.

2) 아동용 성격특성 척도

아동의 성격특성은 윤효정(2013)이 타당화한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윤효정(2013)은 California Child Q-set(CCQ: Block & Block, 1980)을 John 등(1994)이 개념적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48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이선희, 최영임(2011)이 번안 하여 수정한 척도를 문항 수를 추가·보완하여 재타당화 하였다.

성격특성 측정도구는 성실성,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성격특성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67~0.75로 신뢰도가 인정되었다.

<표 2> 아동용 성격특성 척도

성격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α
하위요인	성실성	4	1, 6, 10, 13	.69
	정서불안정성	4	2, 7, 11, 14	.67
	우호성	4	3, 8, 12, 15	.75
	외향성	4	4, 16, 17, 19	.72
	개방성	3	5, 9, 18	.73

2)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아동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가족, 교사 및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리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김승미(1998)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94~0.95로 신뢰도가 인정되었다.

<표 3> 사회적 지지 척도

지지원	문항 수	문항내용	Cronbach' α
가족지지	24	정서적 지지(7문항)	.95
		평가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5문항)	
교사지지	24	정서적 지지(7문항)	.94
		평가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5문항)	
친구지지	24	정서적 지지(7문항)	.94
		평가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5문항)	

3) 주관적 행복감 척도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 만족도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자주 느끼는 정서’로 정서적 안녕감을 나타내며, 생활 만족도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긍정적·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는 Wason, Clark 및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를 이주성(199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총 20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단어에 해당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 전체의 점수를 나타낼 때는 부정적 정서를 역 채점하여 합산하였다.

생활만족도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Diener, Emmons, Larson 및 Griffin(1985)이 일반인들의 생활만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류연지(199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85~0.89로 신뢰도가 인정되었다.

<표 4> 주관적 행복감 척도

주관적 행복감		문항 수	해당 문항번호	Cronbach' α
하위요인	긍정적 정서	10	1, 4, 5, 8, 9, 12, 13, 17, 18, 20	.85
	부정적 정서	10	2, 3, 6, 7, 10, 11, 14, 15, 16, 19	.89
	생활만족도	5	1, 2, 3, 4, 5	.88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 S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0.3%, 여학생이 49.7%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35.5%, 5학년이 32.6%, 6학년이 31.9%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7.7%, 천주교 8.1%, 불교 24.2%, 없음이 42.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잘 사는 편이다가 31.3%, 매우 잘 사는 편이다가 8.6%, 어려운 편이다가 2.3%를 차지하였다.

가족 수는 4인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인이 32.6%, 6인 이상이 13.5%, 3인 이하가 9.6%이었다. 가족구성원은 핵가족이 80.1%, 확대가족이 11.1%, 한부모가족이 7.7%, 기타는 1.1%로 가장 적었다.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각각 63.2%, 5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이하가 8.1%, 18%이었다. 아버지 직업으로는 공무원·사무직이 31.5%, 자영업·서비스업이 16.3%, 기능기술직·생산직이 12.0%, 전문직이 6.2%, 농업·어업·임업이 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으로는 공무원·사무직이 26.5%, 무직·전업주부가 19.1%, 자영업·서비스업이 16.1%, 전문직이 6.9%, 기능기술직·생산직 1.3%, 농업·어업·임업이 0.8%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자	268 (50.3)	학년	4학년	189 (35.5)
	여자	265 (49.7)		5학년	174 (32.6)
경제 수준	어려운편이다	12 (2.3)		종교	6학년
	보통이다	214 (40.2)	기독교		41 (7.7)
	잘 산다	167 (31.3)	천주교		43 (8.1)
	매우 잘 산다	46 (8.6)	불교		129 (24.2)
가족 형태	핵가족	427 (80.1)	가족 수	없음	228 (42.8)
	확대가족	59 (11.1)		3인 이하	51 (9.6)
	한부모가족	41 (7.7)		4인	236 (44.3)
	기타	6 (1.1)		5인	174 (32.6)
부 연령	20대~30대 이하	43 (8.1)	모 연령	6인 이상	72 (13.5)
	40대	337 (63.2)		20대~30대 이하	96 (18)
	50대 이상	39 (7.3)		40대	302 (56.7)
부 직업	전문직	33 (6.2)	모 직업	50대 이상	22 (4.1)
	공무원·사무직	168 (31.5)		전문직	37 (6.9)
	기능기술직·생산직	64 (12.0)		공무원·사무직	141 (26.5)
	자영업·서비스업	87 (16.3)		기능기술직·생산직	7 (1.3)
	농업·어업·임업	16 (3.0)		자영업·서비스업	86 (16.1)
				농업·어업·임업	4 (0.8)
			무직·전업주부	102 (19.1)	

주) 무응답으로 빈도수의 차이가 있음.

2.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격특성의 평균은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외향성이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개방성이 3.69점, 우호성이 3.55점, 성실성이 3.46점, 정서불안정성이 2.68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가족 지지가 4.42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 지지가 3.98점, 친구 지지가 3.71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3.35점이었으며,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정서는 3.52점, 부정적 정서는 2.27점, 생활만족도는 5.1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초등학생들은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 (N=533)

변 인		M	SD
성격 특성	성실성	3.46	.72
	정서불안정성	2.68	.91
	우호성	3.55	.70
	외향성	3.78	.78
	개방성	3.69	.80
	성격특성 전체	3.24	.51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4.42	.75
	교사지지	3.98	.82
	친구지지	3.71	.88
	사회적 지지 전체	4.04	.66
주관적 행복감	긍정적 정서	3.52	.66
	부정적 정서	2.27	.80
	생활 만족도	5.18	1.41
	행복감 전체	3.35	.48

주)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5점 척도이며, 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임.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 S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실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경제수준 인지도이었으며, 정서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이었다. 우호성은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이, 외향성은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부모 유무이었으며, 개방성은 성별, 경제수준 인지도, 가족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와 부모의 연령은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성실성은 4학년 및 6학년과 5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불안정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4학년과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6학년이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5학년과 4학년 및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에서는 보통이다, 잘 산다, 매우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잘 산다고 생각 할수록 우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4학년 및 6학년과 5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집단 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편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인식한 집단보다 잘산다고 인식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편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성실성과 외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개방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불안정성과 우호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았으나 개방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불안정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정서적 민감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우호성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 것(정옥분, 2011)으로 사료된다.

학년은 개방성을 제외한 성실성,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외향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과 우호성, 외향성은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았으나, 정서불안정성은 6학년이 4학년 보다 높았다. 정서불안정성이 6학년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졸업과 중학교 입시에 대한 학업적 불안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성격특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불안정성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풍요롭다고 인지하는 집단이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은 높고 정서불안정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수는 개방성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유무는 외향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편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은 개인의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할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외향적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요인		성실성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성별	남	13.94 (2.92)		10.24 (3.59)		13.92 (2.75)		14.94 (3.12)		11.31 (2.32)		64.37 (9.81)	
	여	13.69 (2.88)		11.26 (3.67)		14.50 (2.87)		15.34 (3.11)		10.87 (2.49)		65.69 (9.83)	
	t	.97		-3.22**		-2.40*		-1.47		2.09*		-1.54	
학년	4학년	13.48 (2.96)	a	10.06 (3.59)	a	13.53 (2.84)	a	14.74 (3.30)	a	11.01 (2.58)		62.84 (9.89)	a
	5학년	14.46 (3.02)	b	10.89 (3.94)	ab	15.03 (2.89)	b	15.86 (2.94)	b	11.37 (2.39)		67.63 (10.16)	b
	6학년	13.54 (2.62)	a	11.36 (3.32)	b	14.12 (2.54)	a	14.85 (2.98)	a	10.90 (2.23)		65.03 (9.83)	a
	F	6.47**		5.95**		13.42***		6.99**		1.82		11.25***	
경제수준	보통	13.18 (2.85)	a	11.21 (3.45)	a	13.53 (2.79)	a	14.46 (3.22)	a	10.64 (2.48)	a	63.02 (9.89)	a
	잘삼	14.20 (2.94)	b	10.16 (3.57)	b	14.46 (2.66)	b	15.54 (2.99)	b	11.37 (2.21)	b	65.74 (9.85)	b
	매우 잘삼	15.00 (2.94)	b	9.46 (4.02)	b	15.59 (2.75)	c	16.04 (2.82)	b	11.85 (2.57)	b	67.93 (10.41)	b
	F	10.44***		6.81**		12.89***		8.41***		7.20**		6.37**	
종교	유	13.54 (2.85)		10.73 (3.67)		13.88 (2.87)		14.76 (3.21)		10.92 (2.44)		63.84 (10.25)	
	무	13.93 (3.07)		10.61 (3.60)		14.27 (2.74)		15.24 (3.13)		11.19 (2.40)		65.24 (9.69)	
	t	-1.39		.32		-1.42		-1.57		-1.15		-1.47	
가족수	3인 이하	13.35 (2.60)		10.82 (3.47)		13.49 (2.93)		14.35 (3.14)		11.39 (2.49)		63.41 (9.41)	
	4인	13.88 (2.82)		10.75 (3.72)		14.25 (2.87)		15.28 (3.11)		11.10 (2.41)		65.25 (9.84)	
	5인	14.05 (2.87)		10.75 (3.47)		14.49 (2.66)		15.41 (3.05)		11.30 (2.38)		66.01 (9.45)	
	6인 이상	13.42 (3.41)		10.71 (4.12)		13.93 (2.96)		14.64 (3.23)		10.40 (2.40)		63.10 (10.77)	
	F	1.30		.01		1.94		2.29		2.65*		2.01	
부모	유	13.86 (2.88)		10.74 (3.69)		14.26 (2.79)		15.23 (3.06)		11.12 (2.42)		65.22 (9.70)	
	무	13.47 (3.12)		10.83 (3.40)		13.70 (3.14)		14.23 (3.63)		10.89 (2.39)		63.13 (11.03)	
	t	.87		-.15		1.29		1.83*		.61		1.39	
부연령	20~ 30대	13.05 (3.03)		10.77 (3.13)		13.37 (2.59)		14.77 (3.48)		10.65 (2.39)		62.60 (10.84)	
	40대	13.88 (2.91)		10.59 (3.69)		14.26 (2.75)		15.10 (3.09)		11.10 (2.41)		64.93 (9.74)	
	50대 이상	13.79 (3.33)		10.95 (4.01)		14.10 (3.34)		15.13 (3.23)		11.51 (2.57)		65.49 (10.20)	
	F	1.49		.19		1.93		.22		1.29		1.17	
모연령	20~ 30대	13.11 (2.86)		10.76 (3.45)		13.99 (2.85)		14.74 (3.58)		10.97 (2.42)		63.57 (10.42)	
	40대	13.93 (2.94)		10.62 (3.70)		14.17 (2.73)		15.14 (2.95)		11.04 (2.41)		64.90 (9.59)	
	50대 이상	13.41 (3.06)		11.41 (3.81)		13.45 (3.46)		14.45 (3.93)		11.59 (2.40)		64.32 (11.08)	
	F	2.96		.50		.73		.94		.60		.66	

1) * p<.05 ** p<.01 *** p<.001

2) a, b, c는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 S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족지지와 교사지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경제수준 인지도이었으며, 친구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 가족 수, 부모 유무, 부모의 연령은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가족지지는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쉐페의 다중범위 검증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다, 잘 산다, 매우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잘 산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5학년과 4학년 및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과 5학년 및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4학년 보다 5학년 및 6학년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은 친구지지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사회화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며 정서적 교류를 하기 때문(정옥분, 2011)이다.

학년은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5학년이 4학년이나 6학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은 친구지지를 제외한 가족지지, 교사지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생활 안정과 관련되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안정된 생활 속에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사의 지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이애옥, 2008; 박현철, 2010)와 차이가 있었다.

<표 8>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성별	남자	106.57(17.35)	95.36(18.01)		85.44(22.40)		287.38(47.28)	
	여자	105.69(18.91)	96.06(21.28)		92.81(19.25)		294.56(47.99)	
	t	.56	-.40		-4.07***		-1.74	
학년	4학년	104.92(17.74)	93.28(17.19)	a	80.87(20.42)	a	297.07(46.06)	a
	5학년	109.13(17.91)	100.81(17.54)	b	96.08(19.75)	b	306.02(44.04)	b
	6학년	104.42(18.51)	93.17(23.17)	a	91.14(20.53)	b	288.74(49.27)	a
	F	3.59*	8.94***		26.81***		15.51***	
경제수준 인지도	보통	101.51(29.68)	91.16(21.03)	a	85.56(21.42)		278.48(49.57)	a
	잘삼	108.01(15.33)	99.25(17.64)	b	89.62(20.40)		296.88(44.28)	b
	매우 잘삼	115.13(7.78)	100.37(17.682)	b	92.02(23.97)		307.52(41.12)	b
	F	14.69***	10.10***		2.39		11.41***	
종교	유	105.27(18.20)	96.32(18.56)		88.96(20.97)		290.55(47.39)	
	무	105.56(17.67)	94.07(21.27)		86.49(21.80)		286.12(48.65)	
	t	-.16	1.18		1.21		.35	
가족수	3인 이하	101.67(25.27)	91.39(20.86)		84.84(22.48)		277.90(58.43)	
	4인	105.55(18.74)	95.96(20.36)		89.05(21.90)		290.56(49.407)	
	5인	108.17(15.04)	96.33(18.46)		90.75(19.62)		295.25(42.17)	
	6인 이상	106.35(16.59)	96.43(19.52)		88.39(21.58)		291.17(45.63)	
	F	1.8	.91		1.06		1.75	
부모 유무	유	106.47(17.83)	95.63(19.78)		89.37(21.12)		291.47(47.26)	
	무	102.79(20.96)	96.47(18.85)		86.40(22.04)		285.66(52.51)	
	t	1.33	-.27		.91		.79	
부연령	20~ 30대	102.51(19.41)	92.79(17.90)		84.00(24.40)		279.90(55.61)	
	40대	106.61(16.28)	95.78(19.695)		89.00(20.28)		291.39(44.81)	
	50대 이상	103.28(22.83)	95.10(22.86)		85.92(24.98)		281.31(54.27)	
	F	1.54	.43		1.30		1.52	
모연령	20~ 30대	106.38(17.75)	94.76(21.56)		86.83(21.35)		287.97(50.81)	
	40대	105.52(17.25)	95.26(19.00)		88.65(20.78)		289.43(44.79)	
	50대 이상	100.50(27.97)	90.50(27.74)		79.77(25.28)		270.77(72.08)	
	F	.95	.57		1.92		1.55	

1) *p <.05 **p <.01 ***p <.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 S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긍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부모 유무가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이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경제수준 인지도로 나타났다. 성별과 가족 수, 부모의 연령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긍정적 정서는 4학년, 5학년, 6학년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높았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편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는 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는 학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쉐페의 다중범위검증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4학년과 5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학년이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학년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의 경우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는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 결과에 의하면 5학년이 사회적 지지를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5학년이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잘산다고 응답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 인지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연화, 2007; 이상숙,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와 부모 유무는 긍정적 정서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		긍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생활만족도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성별	남자	35.54(6.34)		22.40(8.09)		26.35(6.69)		99.50(14.80)	
	여자	35.00(6.92)		23.14(8.07)		25.43(7.43)		97.29(16.46)	
	t	.94		-1.06		1.50		1.62	
학년	4학년	34.70 (6.44)	a	21.64(7.98)		24.57 (6.93)	a	97.65(16.12)	
	5학년	37.00 (6.76)	b	23.10(8.39)		27.28 (7.32)	b	101.18(15.64)	
	6학년	34.13 (6.40)	c	23.68(7.77)		25.95 (6.73)	ab	96.41(14.88)	
	F	9.38***		3.11*		6.76**		4.38*	
경제수준 인지도	보통	33.79 (6.82)	a	23.61(8.01)		24.24 (7.17)	a	94.42 (15.37)	a
	잘삼	35.84 (5.94)	b	22.13(8.12)		27.23 (6.01)	b	100.93 (14.06)	b
	매우 잘삼	38.22 (6.61)	b	21.11(8.80)		29.28 (6.83)	b	106.39 (15.43)	b
	F	10.77***		2.61		15.66***		16.67***	
종교	유	34.33(6.81)		23.02(8.29)		25.68(6.95)		96.99(15.52)	
	무	35.69(6.38)		22.74(8.10)		25.86(7.12)		98.80(15.76)	
	t	-2.15*		.35		-.26		-1.21	
가족수	3인 이하	34.00(7.69)		23.82(9.42)		24.27(8.42)		94.45(19.54)	
	4인	35.56(6.04)		23.07(8.37)		26.26(6.84)		98.75(15.00)	
	5인	35.60(6.81)		22.16(7.45)		26.37(6.72)		99.82(15.27)	
	6인 이상	34.47(7.22)		22.56(7.63)		24.74(7.48)		96.65(15.47)	
	F	1.26		.74		2.01		1.90	
부모 유무	유	35.51(6.48)		22.66(8.08)		26.01(6.96)		98.86(15.25)	
	무	32.89(7.75)		23.89(8.14)		24.72(8.17)		93.72(19.09)	
	t	2.23**		-.99		1.19		1.78*	
부연령	20~ 30대	34.63(5.72)		23.42(8.73)		24.70(8.44)		95.91(16.93)	
	40대	35.50(6.46)		22.60(8.19)		26.27(6.54)		99.17(14.71)	
	50대 이상	34.31(6.87)		23.33(6.96)		25.28(7.71)		96.26(15.78)	
	F	.86		.30		1.24		1.40	
모연령	20~ 30대	34.59(6.38)		22.58(7.96)		25.91(6.93)		97.92(14.59)	
	40대	35.23(6.63)		22.82(8.24)		25.86(6.84)		98.27(15.56)	
	50대 이상	33.50(7.79)		25.91(7.92)		23.14(8.23)		90.73(16.29)	
	F	.91		1.57		1.61		2.46	

1) *p <.05 **p <.01 ***p <.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4.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지지 점수를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과 S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는 모두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는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에서 상, 중, 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 중, 하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정서에서 상·중·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 중, 상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지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전혜리, 2007; 안진, 2009; 박현철, 2010)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행복감 사회적 지지		긍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생활만족도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가족 지지	하(116)	30.94(6.86)	a	26.65(8.85)	a	19.28(6.96)	a	83.57(15.37)	a
	중(230)	35.43(5.67)	b	22.58(7.20)	b	26.11(6.02)	b	98.96(12.52)	b
	상(187)	37.78(6.27)	c	20.61(7.78)	c	29.75(5.12)	c	106.92(12.38)	c
	F	44.23***		21.60***		111.19***		113.27***	
교사 지지	하(133)	31.62(7.06)	a	24.95(8.35)	a	20.95(7.30)	a	87.63(16.36)	a
	중(244)	35.41(5.73)	b	22.19(7.42)	b	26.11(6.36)	b	99.34(13.27)	b
	상(156)	38.17(6.10)	c	21.83(8.56)	c	29.79(5.16)	c	106.13(13.35)	c
	F	40.17***		6.63**		70.84***		62.48***	
친구 지지	하(142)	31.59(6.30)	a	24.93(7.73)	a	21.25(7.18)	a	87.91(14.77)	a
	중(245)	35.33(6.02)	b	22.25(8.49)	b	26.32(6.36)	b	99.40(14.43)	b
	상(146)	38.76(6.04)	c	21.55(7.35)	c	29.72(5.41)	c	106.93(12.48)	c
	F	49.65***		7.40**		64.98***		67.35**	
전체	하(161)	31.32(6.35)	a	25.43(7.90)	a	20.44(6.65)	a	86.34(14.16)	a
	중(219)	35.79(6.01)	b	22.26(8.01)	b	26.72(6.24)	b	100.25(13.83)	b
	상(153)	38.69(5.58)	c	20.71(7.68)	c	30.48(4.39)	c	108.46(10.668)	c
	F	60.52***		14.83***		116.72***		115.41***	

1) *p<.05 **p<.01 ***p<.001

2) 상·중·하 집단은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안은 빈도임.

3) S는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5. 사회인구학적 요인·성격특성·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1> 사회인구학적요인·성격특성·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 격 특 성	1. 성실성	1												
	2. 정서불안정성	.02	1											
	3. 우호성	.58**	.01	1										
	4. 외향성	.54**	-.12**	.58**	1									
	5. 개방성	.57**	.03	.48**	.55**	1								
사 회 적 지 지	6. 가족지지	.31**	-.23**	.45**	.39**	.24**	1							
	7. 교사지지	.31**	-.12**	.45**	.37**	.20**	.57**	1						
	8. 친구지지	.35**	-.04	.49**	.47**	.25**	.44**	.43**	1					
행 복 감	9. 긍정 정서	.55**	-.11*	.56**	.55**	.48**	.36**	.35**	.40**	1				
	10. 부정 정서	-.09*	.50**	-.13**	-.19**	-.05	-.29**	-.16**	-.14**	-.05	1			
	11. 생활만족도	.36**	-.25**	.45**	.42**	.25**	.59**	.45**	.48**	.40**	-.37**	1		
인 구 학 적 요 인	12. 학년	.01	.14**	.09*	.02	-.01	-.00	.00	.20**	-.03	.10*	.08	1	
	13. 가족수	.00	-.00	.03	.00	-.07	.07	.04	.04	-.00	-.05	.01	-.02	1
	14. 경제수준	.21**	-.17**	.23**	.19**	.18**	.25**	.19**	.10*	.22**	-.11*	.26**	-.15**	.00

주) **p <.01 ***p <.001

<표 11>에 의하면, 상관계수가 모두 0.7 미만이고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2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사회인구학적요인·성격특성·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 종속변수		긍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생활만족도		전체	
		B	β	B	β	B	β	B	β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010	.026	-.060	-.130*	.125	.319***	.195	.224***
	교사지지	.019	.057	.015	.037	.038	.108*	.042	.054
	친구지지	.027	.086	-.011	-.029	.058	.178***	.095	.132*
성격 특성	성실성	.530	.238***	-.079	-.029	.248	.106*	.857	.165***
	정서불안정성	-.175	-.095*	1.056	.467***	-.333	-.174***	-1.564	-.366***
	우호성	.445	.188***	-.092	-.031	.118	.048	.656	.119*
	외향성	.351	.167***	-.169	-.065	.158	.072	.677	.138**
	개방성	.289	.106*	.152	.045	-.063	-.022	.074	.012
사회인구학적요인	성별(남)	.593	.045	.020	.001	.665	.048	1.237	.040
	학년	-.371	-.048	.528	.055	.842	.104**	-.057	-.003
	부모유무(유)	1.793	.073*	-.058	-.002	-.003	.000	1.849	.032
	가족 수	-.225	-.028	.014	.001	-.511	-.061	-.750	-.040
	경제수준인지도	.088	.009	.334	.028	.770	.075*	.524	.023
상수		8.818		19.161		-1.077		48.580	
<i>Adj-R²</i>		.468		.286		.497		.592	
F		27.967***		12.730***		31.394***		46.144***	

1) *p <.05 **p <.01 ***p <.001

2) 성별, 부모유무는 더미변수로 ()안은 기준 변수임.

<표 12>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성실성,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등이었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부모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성별, 학년, 가족 수, 경제수준 인지도는 모두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46.8%이었다.

긍정적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실성이며, 그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정서불안정성, 부모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성격특성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부모 유무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등학생의 긍정적 정서는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은 높을수록, 정서불안정성은 낮을수록 높고, 부모가 모두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였고, 성격특성에서는 정서불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지지, 친구지지,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사회인구학적 요인 모두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28.6%이었다.

부정적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불안정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였다. 사회적 지지에는 가족지지만, 그리고 성격특성에서는 정서불안정성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즉, 초등학생의 부정적 정서는 정서불안정성은 높을수록 높고, 가족지지는 낮게 인지할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이었고, 성격특성에서는 성실성과 정서불안정성이었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성별, 부모유무, 가족 수는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49.7%이었다.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정서불안정성, 학년, 교사지지, 성실성, 경제수준 인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격특성은 성실성과 정서불안정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학년, 경제적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성실성, 경제수준 인지도는 높을수록, 정서불안정성, 학년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정서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생활만족도에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에는 가족지지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성격특성은 긍정적 정서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정적 정서에는 정서불안정성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생활만족도에는 성실성은 정적으로, 정서불안정성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요인은 긍정적 정서에는 부모 유무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생활만족도는 학년과 경제수준 인지도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지지보다 성격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생활만족도는 성격특성보다 사회적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복감 전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지지는 아동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는 지지로 부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불안정한 정서를 감소시켜줌과 동시에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및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격특성은 외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불안정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 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격특성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가족 수, 부모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종교 유무,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개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불안정성과 우호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았으나 개방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불안정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정서적 민감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우호성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은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은 개방성을 제외한 성실성,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외향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과 우호성, 외향성은 5학년이 4학년 및 6

학년 보다 높았으나, 정서불안정성은 6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졸업과 중학교 입시에 대한 학업적 불안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성격특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불안정성은 보통이라고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의 소득이 풍요롭다고 인지할수록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개방성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유무는 외향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편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은 개인의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할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외향적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종교 유무, 가족 수, 부모 유무,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친구지지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사회화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며 정서적 교류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년은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5학년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친구지지를 제외한 가족지지, 교사지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생활 안정과 관련되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안정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주관적 행복감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유무, 부모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가족 수,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의 경우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는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았다. 이는 본연구의 사회적 지지 결과에 의하면 5학년이 사회적 지지를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5학년이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잘산다고 응답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와 부모 유무는 긍정적 정서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지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서불안정성, 가족지지, 성실성, 외향성, 친구지지, 우호성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요인은 주관적 행복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불안정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울, 불안, 분노를 자주 느끼게 됨으로써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부정적정서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서불안정성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이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성실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목표 지향적인 성취욕을 가짐으로써 주변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향적 성격특성은 낙관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호성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성향으로 타인에 대한 믿음, 배려를 통해 교우관계나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지지는 아동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는 지지로 부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불안정한 정서를 감소시켜줌과 동시에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은 친구지지를 통해 수용되고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고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사회학적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정서,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복감 전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객관적 지표는 행복감을 평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533명의 학생을 편의표집 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초등학생 모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연령과 표집지역 인원을 확대하여 일반화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설문은 초등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더 높은 신뢰도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초등학생의 강점을 증진시키고자 도모하였으며, 국내연구에서 객관적인 지표와 행복감의 연구는 미비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는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행복감 전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의 제공과 제주지역사회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소연(2012). 아동의 자기통제력, 성격 5요인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수희(2013).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영하(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21(2), 159-177
- 고영미(2010). 긍정 심리학 기반의 행복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 2(1), 5-16.
- 구제선(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지혜(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수(2014).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심미영·원두리(2009). **성격심리학: 성격에 대한 관점들**. 학지사.
- 김남희(2006). 희망과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19-39.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송이(2011). 초등학생의 Big Five 성격유형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미(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화(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영숙(2013).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희(2008). NEO아동성격검사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순(2005).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생활사건의 관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9).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행복감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호(2014).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 삶의 질의 현주소.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컴퍼런스 발표문.
- 노안영·강영신(2013). **성격심리학**. 학지사.
- 류연지(1996).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혜(2004).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요인 : 개인내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귀화(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5요인 성격구조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하(2011).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과 성격 5요인의 특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애(2012). 초등학생의 사회지능과 행복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2007). 사회적지지와 자기 결정성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철(2010).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및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원

- 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수현(2008). 아동의 일상생활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선희(2004). 내,외재 동기유형과 Big-five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0(1), 125-150.
- 송영미(201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 변인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경(2003).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승원(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신호 역(2010). **긍정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안진(2009).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안녕감.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창규·채준호(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443-372.
- 여영진(2003). 아동의 성격특성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순옥(2006).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향숙(2013). 여학생의 성격강점, 기질이 행복감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집단별 차이.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미(2010).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계 : 자기자비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하영(201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효정(2013).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 검사의 재타당화.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상숙(2009).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과 심리적·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최영임(2011).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0(2), 534-569.
- 이원숙(1995).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홍익재.
- 이재영(2012).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성(1991).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2008). **긍정적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 법문사.
- 임인선(2014). 초등학생의 성격감점 지각이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승욱(1996).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안 모색. **사회과학논총**. 15, 293-312.
- 장윤희(2005). 대학생의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31, 93-107.
- 전혜리(2007). 아동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정채은(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영·이경화(2008).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9(4), 167-179.
-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7(5), 1-11.
- 조재정(2012). 아동용 초간편 성격 5요인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윤희(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행복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아(199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선아(2013).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영선(2009).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plan, R(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 Sciences.
- Casta, P. T., & McCrae, R. R(1992). *The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s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3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Lucas, R(2000). Subjective emotional well-being.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Handbook of emotions*. York New: Guilford.

2, 325-337.

Diener, E., Sapyta, J. J., & Suh, E(1998). Subjective well-being is essential to well-being. *Psychological Inquiry*, 9, 33-37.

Oishi, S., Diener, E., Lucas, R. E., & Suh, E(1999). Cross-cultural variations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Perspectives from needs and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80-990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Seligman, M. E. P(1998). Positive social science. *APA Monitor*, 29(4), 2-5.

Watson, D.(2002). Posi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pleasurable emotional state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bstract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Happiness

Kim Joo Hee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Dr. Kim Jeong Sook.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happines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parent edu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For the study objectives, measurements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happiness were obtained from a total of 533 students between 4th and 6th grades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in Jeju.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 18.0 Program; t-test, ANOVA, and Sheffe's multiple range test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happiness

The summary of key finding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grade, economic level awareness,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parent statu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religion status and parents' age, among

sociodemographics.

Second, social suppor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grade, and economic level awarenes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religion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s, parent status, and parents' age, among sociodemographics.

Third, subjective happi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economic level awareness, religion status, and parent status, but no difference by gender,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parents' age, among sociodemographics.

Fourth,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subjective happiness by social support show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bfa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including posi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e groups with a higher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a higher level of posi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groups with a lower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experienced more negative emotions.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happiness are high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s, the more subjective happiness is experienced.

Fifth, the results of analysis on relative effects of sociodemographic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happiness showed that the size of effects were in the order of emotional instability, family support, industriousness, extroversion, peer support, and friendliness, and sociodemographics did not affect overall subjective happiness.

In conclusion, study results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and sociodemographic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subjective happiness. In term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motional instabilit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and emotional instability is believed to cause negative emotions, a subfactor of happiness,

through frequent experience of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in daily lives, which has a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mily support is the source of support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most sensitively aware of and has an effect on nega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interactions with family can be expected to reduc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stable emotions and improve life satisfaction simultaneously.

Thus, in order to work toward improvement of subjective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stable emotions need to be reduced, the solid social support systems need to be established, and the programs to improve the relationships with sources of social support need to be provided.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은 연구를 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아실 수 없으며 연구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김 주희 지도교수 김 정숙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I. 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평소에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는 것과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내 생활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지금까지 내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은 이루어 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만약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감정과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평소 느끼는 감정 정도에 ✓표 하세요.

감정과 기분	전혀 느끼지않는다	조금 느낀다	보통 이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느낀다
◦ 재미있는	①	②	③	④	⑤
◦ 화나는	①	②	③	④	⑤
◦ 괴로운	①	②	③	④	⑤
◦ 신중한	①	②	③	④	⑤
◦ 열렬한 (온 마음을 다하는)	①	②	③	④	⑤
◦ 창피한	①	②	③	④	⑤
◦ 혼란한	①	②	③	④	⑤
◦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①	②	③	④	⑤
◦ 힘찬	①	②	③	④	⑤
◦ 신경질적인	①	②	③	④	⑤
◦ 무서운	①	②	③	④	⑤
◦ 확실한	①	②	③	④	⑤
◦ 섬세한 (꼼꼼한)	①	②	③	④	⑤
◦ 죄책감을 느끼는	①	②	③	④	⑤
◦ 적의가 있는 (미워하는)	①	②	③	④	⑤
◦ 초조한 (조마조마한)	①	②	③	④	⑤
◦ 열광적인	①	②	③	④	⑤
◦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 당당한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생각이나 느낌을 마음속에 담아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창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의 생각과 느낌을 혼자 간직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많은 것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일이 잘못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가까운 사람을 보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남들에게 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내가 하는 일을 매우 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놀림이나 비판으로부터 상처 받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 대부분의 어른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서기, 앞장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가족, 선생님, 친구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한 행동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준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나의 일을 인정해 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나를 존중해주며 대접해 준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 되는 정보를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해 준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충고를 해 준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꼭 필요로 하면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필요로 할 때, 귀중한 물건이라도 빌려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대신 해 줄 것이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V. 다음문항에 대해 해당번호에 ✓표 하세요.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은?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자매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

4. 가족 구성원 수는? ()명

5.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교육정도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6. 부모님의 직업은?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7. 부모님의 나이는?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아버지				
어머니				

8.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경제적 수준은?

-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운 편이다 ⑤ 매우 어려운 편이다.

9. 나의 종교는?

- ① 기독교(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